

# 고흥군, '안전한 농작업 일터 만들기'

## 농작업 사고·농약중독·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 안전관리에 '최선'



고흥군이 안전한 농작업 일터 만들기를 위한 농업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조치와 선제적

예방으로 농작업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농업인(단체), 농촌마을 11개소에

3억 2500만원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사업별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농작업 사고(농기계, 낙상·농약중독·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및 농작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보조구·보호장비·보호구 등 지원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등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은 광업, 건설업과 함께 세계 3대 위험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취재본부**



## 순천시, 스마트농업 도입 행정력 집중

###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순천시가 농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을 선도하여 과수·채소·축산 등 전 부문에 걸친 스마트농업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순천형 스마트농업 확대·발굴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육성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 ▲미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 대한민국 생대수도 일류순천 스마트농업 확대 발굴한다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이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하여 수확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스마트농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 청년 농업인과 감담회 등을 통해 국내외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순천시에 적합한 스마트농업을 확대 발굴하여 미래 청년농의 교육장소, 작물 선정,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기반 마련한다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농업의 핵심 주체인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맞춤형 기

술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농업 현장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 확정 시 5ha 이상의 스마트팜 임대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농장을 경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2023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0.4ha 면적의 스마트온실을 구축한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 농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셋째, 「2023년 농업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 6억을 확보했으며, 순천대학교 내 첨단농업 기술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

### ▶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로 미래농업을 선도한다

1세대 스마트농업은 하우스의 자동 개폐 시스템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격제어·관리 기술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형태는 2세대 스마트농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가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 농업 형태다.

또한, 미래농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농업 모델로 빈 건물을 활용한 수직농장을 보급·육성하고 수경재배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농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직농장은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미래 농업모델로 기존 노지작물에 비해 노동력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물 부족 극복을 위한 물 절약 등 함께하는 변화 필요성 강조

광양시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22일(수) 오전 10시에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와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시민, 환경단체, 1사1하천운동추진협의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수질개선과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2명에 대한 시장 표창 수

여와 물환경 퀴즈대회, 배알도 수변공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 물환경 관련 그림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민관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강화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며 물 절약과 도심 내 생태공원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량 감소로 지역 내 주암댐 저수율이 20% 이하로 낮아져 산업단지에서는 대수전 기간을 앞당겨 물 사용량을 줄이고, 생활용수에 대한 제한급수를 검토하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물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부터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UN이 1992년 12월 UN총회에서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여 올해로 31회를 맞이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 주말 확대 운영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최대 3시간...돌봄 사각지대 해소 역할 토크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무선 주공APT 2단지 소재)이 주

말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토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중요시됨에 따라 '초등 저학년 돌봄 서비스 개선'을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고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을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말돌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3시간까지, 만 6~12세 미만의 아동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1호점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함

께돌봄센터 주말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주말에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또는 긴급한 상황 가정의 아이들에게 하고 또는 방학기간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수=김현근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